함평에 추사 김정희 박물관 들어서나

안백순 이헌서예관장 편지 등 69점 250억 상당
"고향에 기증" 의사 밝혀
전남교육청 200억 투입 폐교 부지에 건립키로

지난 9일 서울 이헌서예관에서 열린 진품 감정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 31억원으로 평가받은 가정유예첩. 제주 해배 후 추사체 완성기인 과천시절 작품으로 추사체의 궁극인 첩(帖) 비(碑) 혼융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다.

함평군과 전남도교육청이 '추사 김정희 박물관' 유치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이헌서예관에서 추사 김정희 작품 기증수락 의견 및 가격자문을 위한 심의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회에는 전남도교육청, 함평군, 이헌서예관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자문위원 6명과 군 공무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심사위원을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날 감정대상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 45점과 현판 9점, 편지 11점, 그림 4점 등 총 69점을 심의한 결과 모두 진품으로 확인됐으며 최고 251억원에 최저 160억원, 평균 204억원으로 감정됐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 유치는 지난해 국향대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추사 남도에서 만나다' 특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함평 나산면이 고향인 안백순 이헌서예관장이 우여곡절 끝에 소장하게 된 추사 김정희 작품을 전시회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 관장은 고향발전을 위해 작품기증 의사를 내비쳤고, 전남도교육청이 200억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박물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함평군은 거점고 건립으로 폐교할 함평여중·고교 부지에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폐교부지 구입비 42억원을 절감하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접목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물관 운영은 도교육청이 박물관을 건립·운영하고, 함평군은 기증받은 작품을 박물관에 무상대여하는 방식이다. 군은 또 함평군립미술관운영조례에 따라 기증자에게 적정사례금 지급을 검토 중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함평군과 전남도교육청은 박물관이 건립되면 전남지역 24만여명의 학생을 포함한 광주, 서울 등 대도시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추사 박물관을 건립하면 총 446억원의 직접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함평군에게는 큰 교육·관광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광주 송정역 시설 대폭 개선

대합실 증축·주차장·화장실 추가 등… 내년 6월까지

그동안 비좁은 역사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광주일보 4월 29·30일자〉을 겪었던 광주 송정역의 시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천정배(서구 을) 의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광주 송정역 대합실 증축 및 주차장과 화장실 추가 확보 등의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천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광주 송정역이 건설 당시 예측한 수요를 상회하고 있고, 현재의 시설로는 근본적인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우선 1단계로 자유연결 통로를 통해 광장 및 주차장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속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여객 동선이 분산돼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 후면에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수도권 고속철도 및 나주혁신도시를 포함한 수요 재조사 결과에 따라 3층의 역무실 등 일부시설을 옥상으로 이전하고 출입문 위치 변경, 편의시설 재배치를 통해 대합실을 증축 확장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내년 6월까지 1, 2단계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 송정역사는 일일 평균 이용인원 1만4162명을 기준으로 신축됐지만,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주말 평균 이용객은 1만6356명, 1일 최대 이용객은 1만95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화장실과 주차장,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다.

천 의원은 "이번 철도시설공단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는 그동안 지역민들이 의지를 모으고, 광주시의회의 송정역 시설 개선 건의안 채택,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푸른길공원 '아시아 도시 경관상' 수상

광주시의 푸른길공원이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유엔 헤비타트(UN-HABITAT) 후쿠오카 본부·아시아 헤비타트협회·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아시아 경관 디자인 협회가 주관해 우수한 경관과 생활환경을 가진 아시아의 도시에 주는 상이다. 아시아 국가와 도시, 기업 등이 응모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등 권위있는 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한강공원·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제주 올레길이, 외국에서는 일본 모에레늪 공원·중국의 칭다오-신구 수계원림 경관 등이 수상했다.

푸른길공원은 개발 가능한 도심 유휴부지를 시민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2002~2014년 동구 계림동부터 남구 진월동까지 길이 8㎞, 면적 12만㎡의 폐선부지를 푸른길공원으로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시와 사단법인 푸른길이 공동으로 응모해 수상했다"라며 "두 기관은 앞으로도 푸른길공원을 가꾸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6년 아셈 문화장관회의 광주서 개최

광주시가 2016년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문화장관회의 개최지로 결정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최근 제7차 아셈회의 개최도시로 광주시를 선정했다.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53개국 문화장관과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문화와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 워크숍 등의 일정도 함께 열린다.

오는 11월 정식개관하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예술극장과 국제회의실 등이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임시 대표이사에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 감독

아시아문화원 임시 대표이사로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선임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23일 문화전당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원 설립을 위한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 아시아문화원 이사회는 정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창립 이사회 멤버는 송숙남 광주대 조형디자인과 교수,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등 위촉직 9명과 감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기사 22면〉

이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을 임시대표 이사로 선임하고 아시아문화원 조직과 직제 등을 심의, 의결했다. 최 임시 대표이사는 오는 10월께 아시아문화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오는 10월1일 출범할 아시아문화원 조직은 경영지원실, 공연사업실, 전시사업실, 교육사업실, 창제작 센터, 아시아문화연구소로 편성,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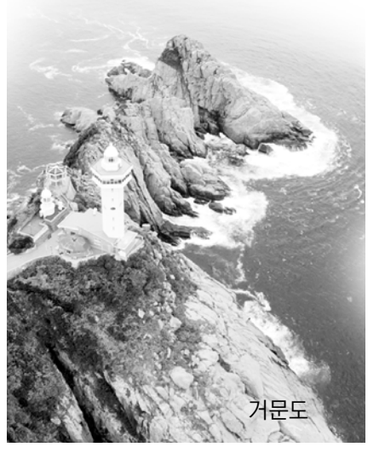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8년 전남 관광객 5000만 시대로"

〈2014년 3196만명〉

道, 3736억 투자 '스타섬' '남도길' 등 55개 과제 선정
中 관광객 전담 여행사 육성·무안공항 수용여건 개선

전남도가 오는 2018년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명소화 사업, 현장밀착형 안내서비스, 전담조직 구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 민간자본을 포함해 3736억3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거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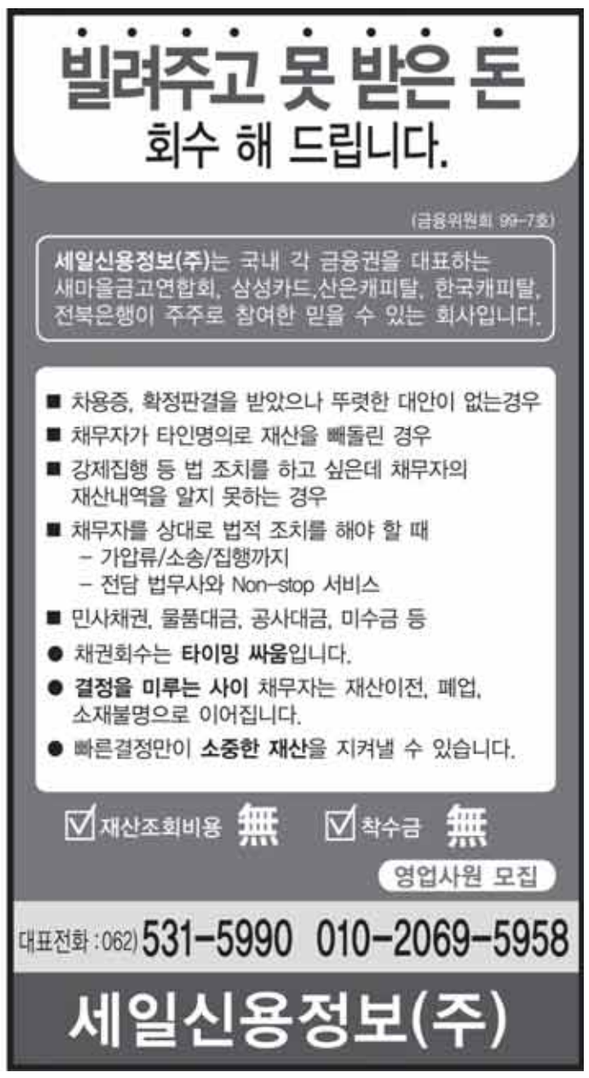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지난해 3196만명 수준인 관광객을 3년 후인 2018년엔 5000만까지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각 전국 7위와 4위인 '재방문 의향'과 '관광 만족도'를 전국 2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력 있는 관광명소, 감동 주는 관광안내, 만족하는 관광기반, 활력 있는 관광역량 등 4대 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하에 5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전남의 자연·문화자원 매력을 살린 남도길, 한류스타와 연계한 전남 대표 '스타섬' 조성, 휴양형 마이스산업(MICARE) 육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 남도여행상품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했다.

또 고객 맞춤형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기반한 관광정보 제공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중저가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전남 관광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호남권 상생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전남문화관광재단으로의 개편 등 관련 조직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 전담 여행사를 육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의 수용여건을 개선해 중국과의 항공노선도 늘리는 등 대중국 겨냥 마케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는 3년간 국비 774억600만원, 지방비 1197억3600만원, 민간자본 1764억8800만원 등을 투자 및 유치한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무안국제공항 정기성 노선 확대 등 전남의 관광 여건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며 " 5000만 관광객 유치를 조기에 실현해 전남이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